

델라웨어 뉴스레터

설기논이: 송종남 (담임목사), 배성호 (부목사), DANNY CHO (EM PASTOR), ANDREW KIM (EDUCATION PASTOR)

담임목사 칼럼



송종남 목사

“목회계획을 세우면서...”

신학교 다닐 때
에 설교학 강의
가 있었습니다. 무
엇을 배웠는지 거
의 잊어버렸지만
한가지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설
교는 청중이해”라
는 한 구절입니다.

즉 그 설교를 듣는 청
중에 따라서 설교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도 마찬가
지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즉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어느
교회에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요즘 부흥하는 어떤 교회에서
무슨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 무조건 그것
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
면 각 교회의 상황과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
입니다.

요즘 저는 새해 목회 계획을 위해서 많은 생
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내실 있는
목회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명 한명,
우리 교회 식구들을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
자로 양육 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
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델라웨어의 많
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구원의 백성
으로 만들 것인가? 등등... 수많은 프로그
램들이 있겠지만, 저는 올 2012년도에는
큐티에 우선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속회와 각 선교회를 활성화시키며, 새신자
관리, 지역사회를 위한 행사, 단기선교, 그
리고 우리교회에 맞는 신앙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
게 하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있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같이 겉으로는 그럴
싸하게 돌아가는데, 내실이 없는 교회와 성
도가 되지 않을까, 저 자신부터 되짚어 보면
서 하나 하나 알차게 채워 가는 한 해가 되었
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목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As I Plan for Church Programs...

I remember taking a Sermon & Preaching class at seminary. I don't remember much what I've learned in that class but I remember one line from that class. That is "Sermon means understanding the church congregation." In other words, depending on the kind of congregation, the ways of giving and preparing sermon and preaching will change. I think it's the same with church programs. Even if we come up with wonderful ideas for church programs, we cannot apply to all churches in the same way. Simply copying programs from the growing and reviving churches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they are appropriate for our church and for our congregation. It's because each every church situation and circumstances are all different.

These days, I think a lot about programs and activities for this year. I ask following questions: "How can we do ministry that has

real substance? How can we invite every single church members to grow to be true disciples of Christ? How can we draw many non-church going people in Delaware to become God's own people?

There can be many programs but this year, I would like to put emphasis on QT. Also, I would like to see strengthening and revitalization of Class-Meetings and Mission Groups. I envision our souls becoming healthy through Bible study. I do not want our church to be a fig tree only with leaves. I do not want our church to have the appearance of something but actually have something substantial. As I think about this year's plan for our church, I pray to God for wisdom and for a fruitful year.



2012년 포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해
The Year of Experiencing the
Grace & Power of the Word.

참으로 은혜와 감사가 많았던 2011년

윤무관 권사

...

2011년을 맞으며
파송되어 오신 송종남
목사님과 함께 희망과
기대에 찬 송구영신에
배를 드렸었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각오로
오신 목사님을 맞으며
우리 교회에 이루어 가
실 하나님의 일들을 더
욱 더 말씀에 의지하며
사모하는 시기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
아니 꿀 같이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회를 통하여 매일 몇 가
정을 정해 놓고 한 가
정, 한 가정을 위해 정성껏 기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때로 제가 잘
모르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 분들을 잘 돌봐드리
지 못한 마음에 죄송스러운 마음
이 생겼고, 제 마음에 섭섭함이 있
었던 가정을 위한 기도순서 때는
제안에 사랑이 없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 놓으며 회개하게 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투병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한 기
도를 드릴 때, 온 교회가 하나가 되
어 합심의 기도로 뜨거웠던 은혜
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새 생명 초청
잔치”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부족
한 저를 보았습니다. 제 자신도 전
도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어색하였
고,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증거하
는 것에 쑥스러운 마음이 들었습
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
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명령에
아직도 준비되지 못하고, 제자로
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
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장찬영 목사님을 모시고
열린 추계부흥회를 통하
여 많은 성도들이 결단하
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
신도 많은 은혜를 받았
습니다. 참된 제자도를
세우는 일은 즉 결단과
순종의 길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보게 되었습
니다. 올 해도 변함없는 하나님
의 사랑을 가지고 떠난 카리비
안 선교의 현장에서 육체의 질
병을 정성껏 치료해 주며, 한 영
혼을 귀히 여기어 눈물로 복음
의 씨앗을 뿌리시던 사역자들
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하나
님의 마음이며, 실천하는 하나
님의 사랑이란 걸 느꼈습니다.
김은애 권사님의 큐티세미나를
통하여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
아가는 우리 교회의 축복된 모습
과 삶의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해 보았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늘 함
께 동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고 진
정한 자유와 평안을 느낄 수 있으

리라 믿습니다. 올 해도 평강의 왕
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
으로 맞이하며 저희 교회가 삶에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쉼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
합니다.

2011년 SIMA

“So Loved”에 다녀와서

Youth Group, 엄도영

• • •

해마다 열리는 SIMA (Greek word for ‘the message’) 가 지난 2011년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Washington D.C에서 열렸다. 근방의 여러 교회 유스그룹 학생들이 모여 함께 배우고 기도하며 훈련한다는 ‘SIMA’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는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등록을 하였다. 우리 교회에선 올 해 유스그룹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포함한 40여명이 성탄예배 후 다음날인 12월 26일 오후 1시가 조금 넘어 수련회 장소를 향해 출발하였다. 들뜬 마음으로 스쿨버스에 오른 친구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고 나 또한 그날 오후부터 있을 SIMA에서의 첫날을 그려보며 여러 생각에 잠겼다.

사실 지난 여름, 7월 6일 - 9일까지 있었던 JAMA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에서 나는 많은 것을 느꼈었다. 예전에는 내가 기독교인이라 생각하면서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부패했다는 생각을 하며 비판하고, 세상에 더 이상의 ‘진정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JAMA를 통해 교회에 대한 나의 인식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기에, 이번 SIMA에서도 나의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도전이 새롭게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보며 또 간절히 소망해 보았다. 그런데 참석하고 처음 이틀은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였다.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 감응과 변화가 없는 내 자신에게 화가 났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셋째 날 저녁, 그 곳에서 함께 했던 나의 소그룹 선생님과 마음을 열고 얘기한 후부터 JAMA에서 보다 뜨거운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솔직히 말해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열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열기 힘들었던 내가 고작 만난 지 3



일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쉽게 열 수 있었을까? 내 자신도 정말 궁금하다. 하지만 웬지 모르게 정말 편했다. 그 선생님과 얘기를 나눈 후 맞은 셋째 날 밤은 내가 JAMA에서 이미 보았던 것과 같은 풍경이 이루어져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울며 ‘Jesus’를 외치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다.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들이리라.” (시편 126: 5)

많은 사람들은 회개의 눈물과 함께 자신들의 고통과 바램을 기도로 올려드렸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 후에 찾아 온 기쁨의 웃음으로 가득한 얼굴들을 보니 주님의 치유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난 사실 하나님의 결을 쉽게 떠나곤 하던 사람이었다. 항상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그 응답이 조금 늦어지면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을 감히 욕하며 그 결을 떠나있곤 하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분을 ‘아빠’라고 칭하고 싶어졌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아빠, 아버지!’ 때로 내 욕심과 자만이 나를 넘어지게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었는데 이번 SIMA에 가서 다시 그 분을 ‘아

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진정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우리 교회 Youth Group 친구들도 이번 SIMA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했을 줄 안다. 이번 SIMA 이후에 더욱 확고해진 내 신앙의 고백은 ‘기독교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느 한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요, 삶의 진실이다’라는 것이다. 이미 말씀을 통해 세상에 이루어진 수많은 일들과 의학이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성령의 일들을 보며 어찌 그 분을 진실이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전보다 더 깊게 주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준 SIMA로 인해 주님께 믿음의 발걸음을 더욱 내디딜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 드린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안세현 원로장로

...

1970년 초부터 바뀌어진 미국의 이민법으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 땅으로 올 수 있게 되었고, 이곳 델라웨어 주에도 한인들의 숫자가 확연히 늘어나게 되었다. 그 당시의 이민자들, 소위 이민 1세라고 불리우는 그분들이 많은 고생도하였지만 또한 열심으로 거두어 들인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해왔다고도 본다. 처음 이민 오던 그 시절이 었 그제 같은데 어느새 그분들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나 또한 올 2012년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같은 시기를 살아 온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개 두 가지 질문을 해 왔다. 첫째는 은퇴 후 편안히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과 어떤 소일거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미국 사람들도 묻는다. **Do you have enough money to retire?** (어느 나이에 돈이 만족할 만큼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not enough"** 라고 대답한다. 요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정년 퇴직 후의 여생이 길어졌기 때문에 은퇴 후 20~30년을 편안하게 살아갈 경제적인 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의 생활이 돈을 저축하며 살기에는 여유롭지 않고, 자녀들을 위한 한국인들의 교육열이 높다 보니 그곳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실질적으로 퇴직 후를 준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다고 자녀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경제파동으

로 소일거리를 찾기란 쉽지도 않은 형편이란단다.

두 번째는 **What are you going to do after retirement?** 라고 묻는다. 글썄, 조금 우스운 나의 대답은 **I don't know but I will figure that out after taking long nap so that get rid of all the stress. Accumulated during whole life.** 사실 우리 인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stress** 의 연속이라 볼 수 있다. 돌아보니 나의 인생 또한 경쟁, 성취 그리고 책임감이 라는 **stress** 의 연속이었다. 이 **stress**에서 완전히 해방 (**Completely free**) 되기 위해 퇴직하는 것은 아닐지. 이 **stress**를 없앤 후에야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낡은 **tire**가 없어져야 새 **tire**를 **Retire**할 수 있는 것처럼).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 조언들을 해준다 "뉘시를 해보세요", "피아노를 배워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글을 써보세요" "요리를 배워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쌓인 스트레스는 많겠지만, '나는 정말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던 중 이사야 3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 떠올랐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그렇다! 교회가 있지 않은가?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이 성령이 충만한 믿음생활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면 황무지에도 풍성함이 넘치고 그러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평온한 생활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진다.

문화 출판 도서부에서는 매달 새로운 신앙서적/신간 도서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된 도서는 교회도 서실에 배치해 놓을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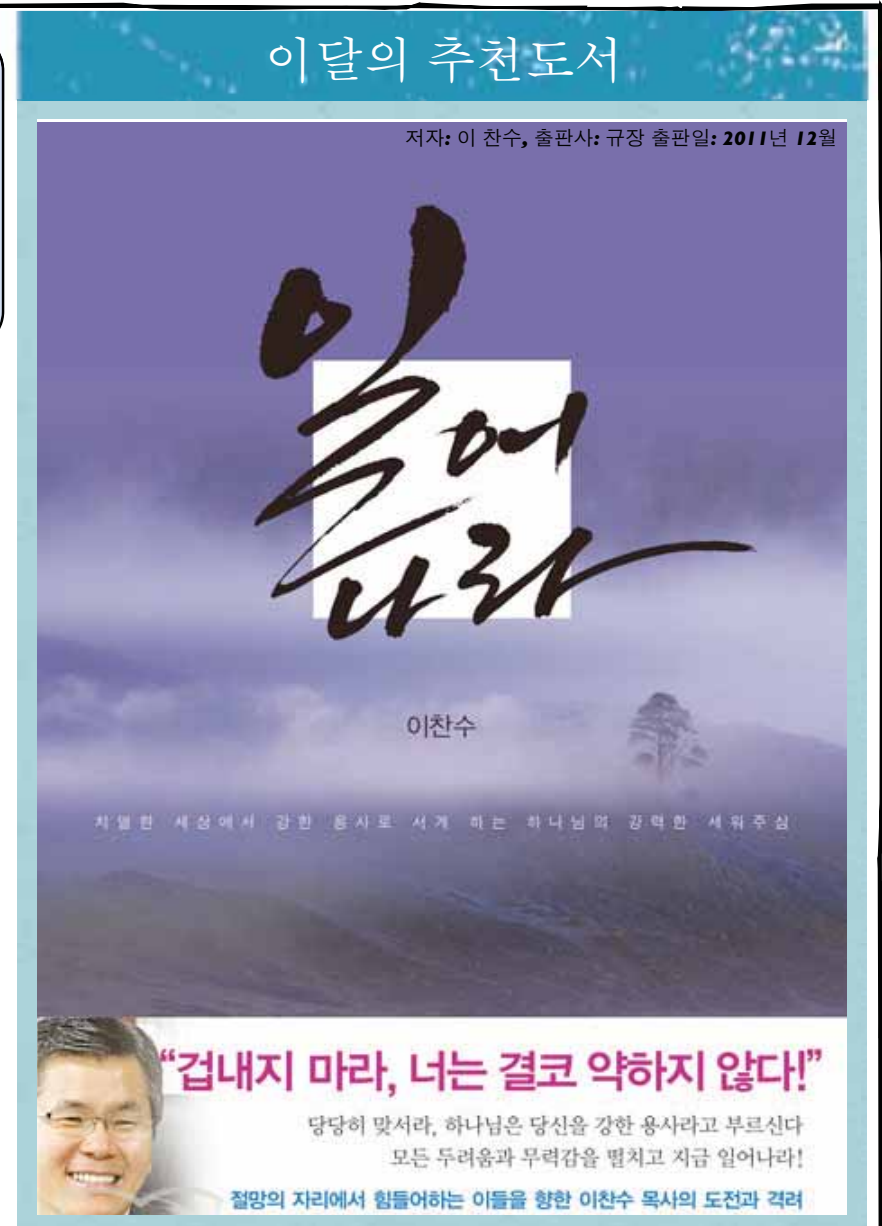
규장 출판사 서평

한국 사회는 지금 분노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울분이 폭발할 것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생활은 어느 때보다 팍팍해졌으며, 가게 부채는 연일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보도가 쏟아진다. 청년들은 실업의 늪에서 탈출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자 이찬수 목사는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고 깊이 고민하며 기도했다. 그러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드온이라는 한 인물을 추천받았다. 기드온은 어떤 인물인가? 기드온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 미디안에 의해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파종할 때만 되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토지소산을 망쳐놓고 먹을 것을 약탈해가며 가축들을 해쳤다. 이런 일이 7년이나 계속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궁핍과 고통은 극에 달했다. 절망적인 현실의 벽에 갇혀 있던 기드온은 무력감과 패배감에 휩싸였고, 비굴하게 숨죽이고 있었다. 적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 안에서 밀 타작을 했을 정도다. 그렇게 나약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별떡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멋진 지도자로 변신했다. 기드온의 울분과 상처가 민족을 살리는 에너지가 되었다.

저자는 이스라엘이 고난에 빠지게 된 원인에서 시작해,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민족을 승리로 이끄는 지도자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변화의 전 과정과 영적 비결을 이 책에서 세밀하게 풀어헤친다.

막막한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우리 안의 무기력과 울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용사로 선후에는 무엇으로 그 에너지를 이어갈 것인가? 기드온의 성장 과정을 따라, 저자는 이 모든 질문에 답한다. 현실의 벽을 깰 수 있는 망치를 우리 손에 쥐어 주는 것이다.



저자는 그런 은혜를 그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했다. 미국 이민 시절,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절망과 패배감을 경험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과 같이 큰 용사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속 힘주심과 격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부여주시는 주 임재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 은혜가 있었다. 세상은 그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라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여! 너는 결코 약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일으켜 세워 주셨다. 하나님의 강력한 세위주심으로 그는 아무것도 변한것이 없는 현실속에서도

마음이 변하여 모든것이 변한 기적을 체험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팍팍한

현실의 무게로 쓰러져 있는 이때에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확신에 찬 어조로 “현실의 벽을 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외칠수 있는 데에는 그가 경험한 예배의 능력과 예배를 통해 그를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짙게 깔려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역시 “너는 약하지 않아”라고 말씀해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힘주심을 통해 지금의 무력한 자리에서 별떡 일어나 현실의 벽을 깨고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이다.

Photo Gallery

지난 **12월**



다섯개의 촛불이 모두 밝혀지면서 성탄 축하예배가
엔젤 합창단의 찬양과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함께 온 성도
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다. **12월 25일**



성탄 이브예배는 아이들과 유스
들의 연극과 찬양 바디워십 공연으
로 진행이되었다. **12월 24일**



종교사회부 주최 Health Day: Temple 대학의 Mrs. Joanne Rhee께서 오셔서 50세 이상이신 분들을 위한 대장암 교육세미나, 당검사 및 혈변검사 용구를 제공받았다. 12월 4일

12월 행사

- 12월 9 (금): 속장, 인도자 모임
- 12월 11일(주일): 여선교회 총회
- 12월 18일(주일): 임원회
- 12월 24일(토): 성탄전야 축하 발표회
- 12월 25일(주일): 성탄 주일 연합 예배
- 12월 26일(월)-29일(목): 청소년부 겨울수련회
- 12월 31일(토): 청소년부 노숙자 선교
- 12월 31일(토): 송구영신 예배

1월 행사

- 1월 1일(주일): 신년 예배
- 1월 3일(화)-7일(토):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 1월 8일(주일): 임원 임명 예배, 장년교육부 모임, 노인학교 준비위원회 모임, 여선교회 임원회의
- 1월 11일(수): 인도자 모임
- 1월 15일(주일): 성가대원 및 교사 임명 예배 여선교회 총회, 재정위원회 모임
- 1월 15일(주일): 속장모임
- 1월 22일(주일): 청소년부 PTA모임
- 1월 29일(주일): 임시임원회
- 2월 5일(주일): 재단이사회 모임

1월 가정을 중보하는 새벽기도

3일 화: 이석원, 은경	수: 이승섭, 안나	목: 이영석, 미향	금: 이영자	토: 이영찬, 연환
10일 화: 이종현, 혜옥	수: 이해점	목: 임춘예	금: 장기영, 지선	토: 정성호, 희진
17일 화: Lawrence, Angie G.	수: 조규철, 태실	목: 조문환, 수연	금: 조범진, 슬기	토: 조수광
24일 화: 조영자	수: 조영훈, 현희	목: 주승근, 화자	금: 차구현, 애리	토: Chris, 영심 O.
31일 화: 최수훈				

예배와 성경공부 안내

중보기도	주 일	오전 10:30-10:50
1부 한어 예배	주 일	오전 8:00
영어 예배	주 일	오전 9:45
2부 한어 예배	주 일	오전 11:00
아동부 예배	주 일	오전 11:00
청소년 예배	주 일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화~토	오전 6:00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오후 7:50
청년부 예배	금요일	오후 6:30
청소년부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5:00
여선교회 Q.T. 모임	금요일	오전 10:00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JOHN 4:24

델라웨어 한인 감리교회

Delawar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717 Loveville Rd.

Hockessin, DE 19707

(302) 235-5735, Fax (302)235-5736

STAMP

